

### 고독한 가객의 삶과 예술

《명창 임방울》 펴낸 천이두씨

받지 못한 채 고독한 판소리의 외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과 궁핍은 결국 당대 사회의 정서와 어우러져 애절한 민중의 한과 절규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원이 고향인 천이두씨가 임방울의 소리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시절 우연히 〈쑥대머리〉를 듣고부터. 전북대에서 강의할 때부터 조직한 ‘판소리 감상회’에서 임방울에 얽힌 일화를 자주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임방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해 1980년대 초에는 《판소리 명창 임방울》(현대문학)을 펴내기도 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그의 가족친지와 제자들로부터 다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설처럼 돼버린 행적도 많지만 그것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을 듯해 소설적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현재 전북의 예술 동인지 《문화저널》의 발행인이기도 한 그는 최근 문학의 위기를 진단한 평론집 《우리시대의 문학》(문학동네)과 60~80년대까지의 소설월평을 정리한 《한국소설의 흐름》(국학자료원)을 펴냈다. 내년 1년은 일본 동지사(同志社)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초빙돼 ‘한일 구비서사 비교연구’에 정진한다.

— 박천홍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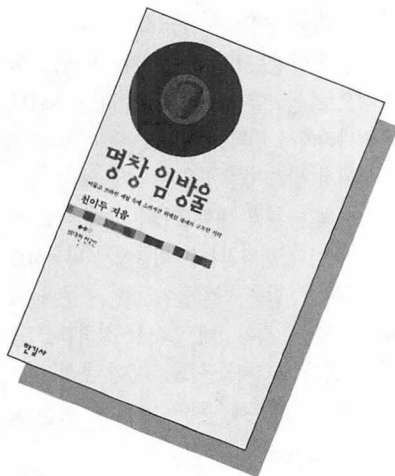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의 찬자리에 생각나는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이 임 그리는 정한에 사무쳐 한탄하는 〈쑥대머리〉의 한 대목이다. 이 노래는 일제 말 한 가객을 만나 절창을 이룬다. 명창 임방울(1904~1961)이 바로 그다. 임방울이 토해내는 한의 가락은 막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민중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 별이 되고 눈물이 되기도 했다.

문학평론가 천이두씨(69)가 펴낸 《명창 임방울》(한길사)은 천재적인 가객 임방울의 삶과 판소리를 복원한 전기다. 임방울은 1904년에 태어나 1940년대와 50년대 국창으로서 민중들의 애환을 절절한 가락으로 풀어낸 뒤 57세에 피를 쏟으며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천대받은 광대의 그것이었지만, 민족정서의 수맥을 끌어올렸던 예인의 그것이기도 했다.

“판소리는 기층민중의 한탄과 절규의 가락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양반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점차 친체제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일제 말까지 지속되지요. 하지만 임방울대에 이르러 비로소 가장 민중적인 한의 소리로서 판소리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임방울이 판소리의 전형적 미학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암울한 민족사와 개인사적 불행이 놓인다. 가혹한 일제의 침탈, 변방문화로 밀려나는 판소리,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닌 가난과 천대 등이 그의 판소리를 가장 민족적이자 민중적인 가락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했다.

“임방울은 선배들처럼 벼슬에 오르지도 못했고 후배들처럼 인간문화재로서 대접도



### ‘사랑’에 대한 사회학적 시선

《사랑을 읽는다》 펴낸 함인희씨

그의 첫 작품이다.

“먼저 ‘자아’의 문제를 확립한 다음 ‘사랑’에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의 지점에 접어들어 관계의 한가운데에서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그런 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겠죠.”

소비사회·일상성·사랑에 대한 함교수의 관심은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 쪽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관심분야는 ‘데이트의 역사’다. 서구의 낭만적 각본이 어떻게 대학문화 속으로 유입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 밝히고 싶은 것. 또한 결혼 전후로 변화하는 ‘사랑’의 개념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사랑을 여성적인 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관계지만, 사회 구조의 민주화가 비로소 출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긴다.” 한 여성 사회학자가 읽은 ‘사랑’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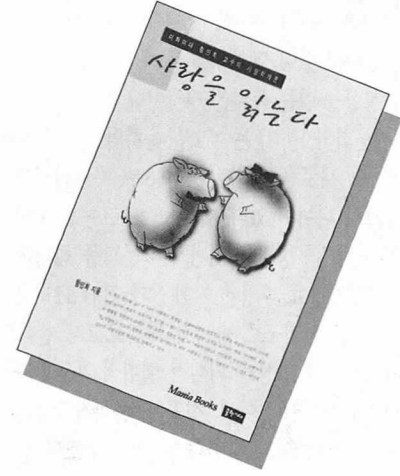
— 김연수 기자

꽃 피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분꽃들 피어오르듯, 때가 되면 다들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친구와 서로 비교해보고 영화 속의 사랑과 견주어보기도 하지만, 웬일인지 사랑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군가에게 배워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사랑을 꾸미는 말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진정한’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란 없습니다. 개인마다 사랑의 경험은 다르므로 스스로 솔직한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죠.”

《사랑을 읽는다》(출판시대)를 쓴 함인희 교수(39, 이화여대 사회학과)는 잘라 말한다. 이 책에서 함교수는 이화여대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사회학적으로 탐색했다. 면담에서 학생들은 만남에서 이별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털어놓았다. 함교수는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사랑에도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체험을 민주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집단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객관주의를 거부하고 ‘나’를 잃지 않은 가운데 관계성을 충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교수는 꾸준히 ‘사랑’에 관심을 가졌다. 그간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가족주기의 변화와 주부역할의 딜레마〉 같은 사회학 논문을 썼다. 이 책은 사회학적인 세부 주석을 책 끝으로 돌리고 면담을 통한 실제 사례를 앞세워 쉽게 ‘사랑’이라는 개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 민족의 영산에서 역사 기행문

《지리산에 가련다》 펴낸 김양식씨

통해 우리의 역사·문화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역사·문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리산을 해석하는 그의 관점은 다분히 사람을 지향한다.

산을 오르는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역사를 반추한다. 주체가 변하면서 지리산은 '신선의 산'에서 '전비의 산', '민중의 산'으로 거듭났다. 산의 이상은 여전한 가운데 점점 민중 가까이 다가온 셈이다.

"지리산은 민족의 환희·애환·고통·모순이 배어든 산입니다. 항쟁·난·전쟁을 거치는 동안 민족의지를 다져준 수호신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어머니 같은 산을 바르게 알고 오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지리산에 대한 기행 역사서를 펴낸 데는 산에 대한 예의도 포함된다. 민족사의 장구한 내력이 숨쉬는 지리산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후 한국적인 것, 너무나 한국적인 것에 대한 글을 쓸 계획도 오늘날 흔들리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다. 지리산은 '나'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까지 이해하도록 이끄는 민족정신이다. 혼돈의 시대에 뿌리 깊은 기둥으로.

— 오완진 기자

백두대간의 뼈대를 이루는 지리산. 노고단의 해운과 피아골의 검붉은 단풍, 그리고 천왕봉에서 해돋이를 대하면 가슴벅찬 희열을 만끽할 수 있다. 골짜기마다 서려 있는 이천년 한반도 역사를 알고 등정하면 더욱 알싸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역사학자 김양식(3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연구위원)씨가 펴낸 《지리산에 가련다》(한울)는 지리산에 얽힌 역사·문화를 기술하여 신비감을 한층 더했다.

"지리산은 3도를 품고 있는 광활한 산입니다. 그만큼 관련 자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다짐했다. 결코 지리산을 육보이지 않을 수작을 만들겠다고 수시로 산을 오른 끝에 이 책의 거의 모든 쪽에 들어 있는 사진들을 직접 찍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산자락마다 숨쉬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30년대 찍은 칠불사 사진과 복원된 사찰을 비교하면서 신비감이 어느 정도 사라졌는가 설명했다. 일제시대 작성된 지리산 약도를 보면 대원사에서 화엄사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이는 지금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노고단에 자리한 외국인 별장을 찍은 사진은 희귀자료로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리산에 대한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습니다. 한반도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현장을 실감나게 담고 싶습니다."

이천년 지리산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연대순으로 담았다. 지리산의 역사·문화를



### ※ 톨스토이의 지혜의 달력

· 톨스토이 지음/384면/양장/값10,000원

모든 작가들은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고 그들만이 태어났다고 믿는다. 톨스토이는 그에게 있어 이러한 책이 「지혜의 달력」이라 믿었다. 역사 속의 완전한 예술가 한 사람과 조물주가 만들어낸 심오하고 열의에 찬 걸작이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톨스토이 자신이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 말년의 작품이다. 혁명 전에 러시아에서 널리 읽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자 판금되어 잊혀진 「지혜의 달력」은 최근에 다시 발견되었다. 이 책은 희미해지지 않는 빛으로 가득찬 매일의 지침이다.



### ※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 토머스 불핀치 지음/202면/값 5,000원

그리스 로마 신화와 북구 신화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신화는 켈트족의 신화인데, 그 주인공 중의 하나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다. 또한 이것은 다른 신화와 달리 기독교적 전설이다. 저자는 현대 유럽국가가 태동하던 시기의 기사들 이야기를 현대감각에 맞추어 다루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독 도서이다.



### ※ 표준 서양철학사

· 프랭크 킬리 지음/양장·신국판/840면/값 25,000원

십수 년만에 국내에 처음 나온 본격적인 철학사 교재! 철학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 철학교수가 쓴 책으로 오랫동안 미국대학에서 표준적으로 쓰이고 있다. 초판은 1914년, 2판은 1951년, 제3판은 1956년 레저 우드 교수에 의해 개정 증보되었다. 미국 각 대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참고서로 유용하게 쓰여왔던 책은 거의 없다.



### ※ 플루타르크 영웅전 선집

· 신국판/432면/값 10,000원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모두 50명의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의 생애를 이야기하며 비교하고 있다. 영웅전 전체는 상당히 방대하다(신국판 약 2,000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고전총서를 발간하면서, 그중 반드시 읽어야 할 9명의 영웅전을 모아 한 권으로 출판하였는데, 본 역서는 바로 그 책이다. 이 책만큼 인류의 영원한 재산이라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책은 드물다.



### ※ 로마의 건설자들

· 플루타르크 지음/신국판/370면/값 9,000원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로마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 9인의 전기만을 따로 엮은 것이다.



### ※ 청소년을 위한 그리스 신화

· W.H.D 라우스 지음/신국판/280면/값 5,500원

20세기의 훌륭한 그리스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라우스는 훌륭한 선생님이자 만담가였다. 그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리스 신화를 소개하는 탁월한 입문서를 만들었다. 알기쉽게 쓴 최상의 안내서이다.



### ※ 한 권으로 읽는 셰익스피어 이야기

· 찰스 램 지음/신국판/383면/값 8,500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작품 20편을 읽기 쉽게 산문체로 다이제스트 하였으며, 거의 2세기 동안 셰익스피어 이야기의 요약의 걸작으로 인정받았다. 부록으로 그의 전작품 37편의 요약이 첨부되어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해설이 자세히 붙어있다.



인문학 전문출판

현대지성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5-1(임광B/D304호)

· 전화 588-9864 · 팩스 588-5267